

## ■ ■ ■ 수석합격기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 무 제



### 김 신 호

- 부산남일고등학교 졸업
- 경찰대학(18기) 법학과 졸업
- 제2차시험 총점 425.45점(평균 56.72점)
-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I. 시작하면서

2차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보내왔을 고난의 시간들이 느껴져,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수험생이 합격의 결과를 받더라도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제가 합격, 그것도 수석이라는 과분한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발표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된 것은 제 스스로 수험생활의 힘겨움을 알고 있기에, 저의 경험이 지금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 II. 법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면서, 경찰관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입법자 등이 제정한 ‘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사실관계가 어떤 법률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만약 요건에 해당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정에 많

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론 자체가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시험에서는 사실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설문에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수많은 특별법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실력인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찾았다면, 사실관계가 그 법률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조항 즉,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법원이 실제 판단을 행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학설과 판례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연히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임기하는 것보다는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III. 시험에의 적용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특히 2

차)시험에 적용하자면, 설문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률조항 적용시 문제되는지 해석이 무엇인지를 '문제의 제기'목차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기술하고, 그 결론에 따라 사실관계가 법률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사안포섭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도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조문을 보면서 스스로 어떠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시험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IV. 제1차시험

민법의 경우 송덕수 저 민법강의를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기본서를 1회독하면서 공부한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고, 그 기출지문을 기본서에 표시 또는 가필했습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서 내용을 3회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독 이후부터는 표시되거나 가필된 부분 및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기본서만을 반복하였습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신호진 저 형법

요론을 기본서로 보았는데, 요론에는 이미 기출빈도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기출지문을 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자 상황에 맞추어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경우 정회철 저 헌법기본강의와 김유향 저 오엑스집을 활용했습니다. 오엑스집이 기출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오엑스집에서 부족한 내용만을 기본서에 체크해 두고, 시험 직전에는 오엑스집과 기본서에 체크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국제법(선택)의 경우 안진우 저 국제법요론을 기본서로 보았는데, 민법과 마찬가지로 기출지문을 기본서에 표시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3년간)는 모두 기출지문과 마찬가지로 중요도를 두고 공부를 했는데, 특히 헌법에서 최근판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인 1차 시험에서는 기출지문과 최근판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준비 역시 그에 맞추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는 했지만 법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는 2차 시험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되, 기본(특히, 조문)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생활은 최종적으로 시험직전에 1회독을 해서 기억이 선명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 지나치게 비교하기 보다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시험직전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V. 제2차시험 - 시험준비

민법은 윤동환 저 민법의 맥을 기본서로 하여, 부족한 부분은 1차 기본서로 보았던 송덕수 저 민법강의 내용을 가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은 별도로 보지는 않았지만, 기출사례와 기본서에 있는 사례를 목차를 잡는 정도로 풀어보았습니다.

형법은 이재상 저 더형법을 기본서로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생각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1차 기본서로 보았던 형법요론 내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상 저 사례집을 목차를 잡는 정도로 풀어보았습니다.

헌법은 김유향 저 사례집을 주교재로 하면서 1차 기본서를 보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즉 1회독시 사례집에

부족한 부분을 1차 기본서 내용으로 보충하여 그 이후에는 사례집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 이를 표시하여 2회독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빠르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법은 김혁봉 저 상법신강을 기본서로 하고 황의영 저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1회독시 목차 잡는 정도로 사례를 풀어보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가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독 이후부터는 기본서만을 보았습니다.

행정법은 김기홍 저 핵심정리 행정법을 기본서로 하고, 정선균 사례를 보충하였습니다. 상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사례내용을 첨가하여 2회독 이후부터는 기본서만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창환 저 통합민사소송법을 기본서로 보면서, 기본서에 있는 사례를 풀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주형 저 형사소송법강의를 주교재로 하면서, 신이철 저 신형사소송법쟁점으로 보충하였습니다. 1회독시 주교재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보충교재 내용으로 대체하고, 2회독 이후부터는 주교재만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본서에 사례집이나 보충교재 내용을 정리하여 단권화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치면서 관련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2회독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간

활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경우는 윤동환 저 기출사례집을 활용하여 매일 30점 가량의 사례를 목차잡는 정도로 풀어보았고, 형법은 이재상 저 사례집을 매일 1문제씩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목차를 구성하는 정도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민법과 형법 기출문제집(사례집)을 1회 풀어본 이후에는 민법은 매일 1시간씩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시험에서는 특히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풀어내지 못하여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학원강의 기준 3순환기간부터는 매일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시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4시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 과정을 거쳤는데, 만약 이번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VI. 제2차시험 - 답안작성

2차 시험 답안작성 방법은 “Ⅲ. 시험에의 적용”에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른손 인대가 좋지 않아 2시간 동안 필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글씨를 흘려쓰면서 2시간 동안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 시험장에서도 운동선수들이 활용하는 밴드를 붙이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필체는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점자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필체는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차는 사례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성했습니다. 즉 목차만을 읽어도 대강의 논리전개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목차구성에는 대략 15분에서 20분 가량의 시간을 소요했던 것 같은데, 만약 글씨를 쓰는 속도가 빠르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필기속도에 맞추어서 시간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답안 작성을 연습했을 때 50점 기준으로 9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여회의 답안작성 연습을 거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과목당 5분에서 10분 가량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2차 시험에서는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Ⅶ. 합격수기를 마치며

합격수기를 마치면서 수험기간 중 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기간 중에는 가급적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 여건상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슬럼프를 방지함을 물론 이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식사시간 이후 20~30분 가량 산책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 중에는 시간활용 차원에서 가급적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내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로 수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오랜시간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설령 불합격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위 말과 같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저 역시 여러분들 존경하고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